

“2천여 배 농가안녕기원” 나주시, 배신제 봉행



금천면 소재 나주배박물관서 행사 개최 “나주배 명성 유지 위한 정책 추진 최선”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8일 금천면 소재 나주배박물관에서 2천여 배 농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배신제’ 봉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신제는 나주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무탈한 한 해 농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행사로 배춧잎 만개하는 4월 중 거행한다.

제례는 전통 향교 제향방식을 따른다. 제를 주도하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외에도 농업인, 시민들은 참례(參禮)하며 한해 배 농가의 풍성한 결실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최소인원이

참여해 간소히 진행됐다.

이날 배신제는 남평향교 전통 제향 방식으로 제관전정 및 분정에 초헌관은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이, 아헌관과 종헌관은 김영덕 시의회의장과 이동희 나주배원에능협 조합장이 각각 맡아 의식을 치렀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저온, 병·해충 피해 없이 한 해 농사가 무탈하게 진행돼 2천여 배 농가 모두가 풍년의 기쁨을 나눴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를 올렸다”며 “나주배 명성 유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지리산 자생식물도 ‘식물표본전시관’ 탄생

구례군이 지리산 및 섬진강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식물표본전시관과 세밀화전시관을 설치 운영 중이다.

식물표본전시관의 1층 내부는 지리산의 특산 식물들을 비롯하여 지리산 사계절 야생화를 주제로 한 식물표본들과 여러 종류의 씨앗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2층에 조성되어 있는 포토존에는 거대한 규모의 압화 작품이 포토존의 배경으로 들어가 있다. 조화가 아닌 실제 꽃으로 만든 작품으로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작품 관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식물세밀화전시관은 식물표본전시관 내부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단독 1층으로 조성되어 있는 전시관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선보인 식물세밀화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 30여점이 전시 중이다.

두 전시관은 압화박물관과 도보로 왕래할 수 있는 근거리로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례=박진호기자

여행도 하고 지원도 받고...화순군, ‘남도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최소 7일 ~ 최장 30일, 남도 장기 체류 여행 지원

화순군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장기 체류 여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여행자는 개인 SNS를 통해 남도 여행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참가자가 여행하는 동안 드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활동비를 지원하고, 참가자는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여행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남도 여행을 홍보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공고일(2022.

4. 11.) 기준 전남 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이다.

여행 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장 30일이다. 다만, 부모 동반 시에는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군은 ▲개인 SNS 활동 능력 ▲여행목적 ▲체류기간 ▲여행과 홍보 계획 등을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여행

작가 ▲블로거 ▲유튜버 등 화순군 관광 홍보에 적합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재된 <2022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은 11일부터 게시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힐링의 도시 화순에서 체류하며 남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구례군은 7일 ‘건강한 일상, 모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의 제50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2인 1조로 가계 상인 및 군민들에게 생활용품 위주의 홍보물품을 나누고 금연, 건강생활실천, 영양, 치매, 심뇌혈관질환, 코로나 심리지원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4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등 선제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 날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가 행사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건강의 달로 지정하여 매주 금연, 비만 예방,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주제로 건강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 레스터파트너스와 업무협약(MOU) 체결

곡성읍 일원 총 3000억원투자 계획...2023년까지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목표



곡성군이 지난 5일 ㈜레스터파트너스(대표 김중수)와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레스터파트너스는 곡성군 곡성읍 일원에 총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레프팅 파크, 종합 운동장, 리조트, 워터파크, 조정 연습장(체험장) 및 경정장 등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이 이행된다면 곡성군에는 약 83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으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수 대표는 “방문객이 다양한 관광 시설과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담양자활센터 이름 사업단 창평사업장 개소

담양군은 담양자활센터에서 지난 8일 주민들에게 일자리 참여율을 높이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평면에 자활센터 사업장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담양자활센터는 2003년 8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 사업장이 담양읍과 무정면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의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창평문화의집(창평면 창평리 82-2)에 창평 사업장을 열어 인근 참여자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됐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자활사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